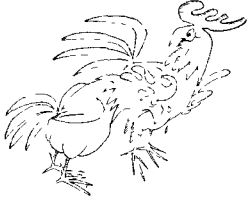


## 마렉접종보다 더 중요한것



김 영 환

<한국 유리브리드 전문>

초생추 때에 마렉예방 백신을 정확한량 접종하여 분양된 닭에서 왜 마렉병이 10~30%씩 발생하는가? 1971년 5월 23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마렉예방 접종이 실시된 이래 백신접종을 받은 병아리에서 마렉병이—마치 부화장측의 접종을 안해서 분양한 것 처럼—대량 발생하여 사육가와 부화장간에 논란이 생기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비단 한국에서 뿐 아니라, 미국 및 구라파에서도 수 없이 발생되어 오고 있다.

서울 성동지역의 L씨는 마렉백신 접종을 받은 병아리 2,000수를 사육하든중 60일령 부터 하루 2~3 수씩 다리 마비증상으로 도태계가 나오다가 80~90일령 사이에는 하루평균 10수의 다리 신경마비 형태의 폐계가 속출하여 현재 120일령 까지 25%의 도태 및 폐사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계군의 일부는 국립가축위생연구소에 보내져서 마렉병이라는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비슷한 피해 상황은 액체질소 콘테이너에 저장하는 세포결합백신(Cell Association H. V. T Vaccine)과 냉동건조백신(Cell free H. V. T Vaccine)에 의해 접종된 병아리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피해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부화장이나 백신 메이커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너무나 복잡한 여건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액체질소 보관백신과 냉동건조 백신의 마렉병

예방효과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주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액체질소 보관 백신은 그 저장과 사용에 있어 냉동건조 백신보다 매우 까다롭다. 마렉백신을 부화장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잘못하기 쉬운 10가지를 열거하여 보면,

1. 백신 저장통(콘테이너)에 액체질소 충전이 늦으며 백신이 녹기 쉽다. 일단 녹은 백신은 다시 얼려도 효과가 없다. 보관 책임자는 매일 콘테이너를 저울에 달아서 액체질소량을 체크해야 한다.

2. 예방약 앰플을 녹이다가 파손되어 물이 들어가게 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백신을 손에 넣어 녹이지 않아야 한다.

3. 회석액에 일단 백신을 혼합하면 2시간 이내에 접종 완료 해야한다. 접종중 면회, 용변, 휴식, 전화응대를 금해야 한다.

4. 사용량을 정확히 지킨다. 1,000수분을 가지고 1,050수를 놓지 않도록 한다.

5. 백신을 회석액에 넣은 다음 잘 혼합되게 하기 위해 심하게 흔드는 것을 피한다.

6. 접종에 사용되는 주사기의 프란저 고무가 닳아 백신이 새어 나오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7. 200수 접종시 마다 연속 주사기를 조절해야 한다.

8. 백신이 회석된 회석액은 접종도중 5분에 한 번씩은 백신이 갈아 앉지 않도록 약하게 흔들어 주어야 한다.

9. 접종에 익숙한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1시

간에 1,200수이상의 속도로 접종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10. 마력병은 난계대 감염은 아니다. 그러나 난각표면에 붙어있던 마력병 바이러스가 부화기 내에서 증식하여 발생하는 초생추에 감염되어 마력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종란은 종계장에서 집란즉시 훈증 소독되어야 하고, 병아리 발생시 다시 훈증 소독되어야 한다. 발생된 병아리는 가급적 빨리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한다.

백신의 예방효과를 위하여 부화장은 이상 10가지 문제점을 마땅히 해결해야 한다.

**H. V. T 백신의 간섭현상**

종계에 H. V. T형의 마력백신을 접종하면 그로부터 생산되는 초생추는 모계로부터 면역항체 (Parental immunity)를 전달 받는다. 이 초생추에 다시 H. V. T 마력백신을 접종할 경우 모계 이행 항체는 초생추의 새로운 면역력 형성을 방해하여 백신 접종을 받은 병아리라 할지라도 마력병 피해는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러한 간섭현상이 사실이라면 초생추에 주사하는 H. V. T백신의 예방효과를 충분히 높이기 위하여 종계에는 다른 형태의 마력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지아대학”의 “에이드슨(EIDSON) 박사”는 H. V. T 백신을 종계의 1일령이 1회만 접종한다면 이행 항체의 간섭현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계 이행 항체의 간섭현상 여부를 밝히는 문제는 좀더 깊은 연구를 거쳐야 밝혀질 것으로 보

인다.


일본의 수의학박사 「기쿠노」씨는 「마력백신접종을 했어도 적어도 6주간은 환경위생이 좋은 격리된 상태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 2월 15일 서울에서 개최한 강습회에서 역설하고 있다.

초생추에 H. V. T마력 백신을 주사하면 평균 10일만에 면역 항체를 형성하기를 시작한다. 면역항체가 형성되기 이전에 맹독성 마력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동 강연회에서 “기쿠노박사”가 인용한 흥미있는 수치를 소개한다.

	구 분	공시수	마력병 발생	초기발생률
소독이 잘된 계 사 이 용	접종계군	400수	16수(4%)	
	비접종군	400수	48수(12%)	
오염계사이용	접종계군	425수	65수(15.3%)	56일
	비접종군	425수	121수(28.5%)	47일

위 수치를 검토하면 소독이 잘된 계사에서 비접종 계군과 오염계사에서 비접종계군의 마력병 발생수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즉 마력예방접종은 좋은 환경, 철저한 관리로 받은 닭에서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계군에서는 충분한 예방효과를 받을 수 없음을 양계인은 인식해야 하겠다.

가장 중요한것은 부화장과 양계장의 위생관리이고 그 다음이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삼성가축약품상사

## 삼성전기공업사

삼성케이지 제 조 원

각종 가축약품 원진구비

신속배달 발송

전남 광주시 서동 47-8  
 <대창석유 주유소앞>  
 Tel ③1328. 대표 이관범